

팩션과 서간체 소설의 만남

강현구*

1. 머리말
2. 욕망과 공포
3. 서간체 팩션의 서사전략
4. 역사관의 현시
5. 맺음말

국문요약

『모반의 연애편지』는 세조의 후궁 소양 박씨가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에게 보낸 연서사건을 단초로 하여 궐안팎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을 그렸는데, 역사적 사실(fact)과 허구(fiction)가 결합된 팩션(faction)이자, 세조대에 궐내외 36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서신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즉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84통의 편지만으로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두 가지 사실로 압축된다. 첫째는 당대를 가로지르는 시대적 명제와 당대인의 삶을 규정짓는 가능자가 무엇인지와 그것을 드러내는데 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게 될 것이다. 둘째는 팩션에서 ‘정치적 함의가 큰 의문의 사건이 사건조사를 통해 마침내 의외의 비밀을 드러내는 추리물의 서사구조’가 ‘서간체 소설 양식이 지닌 내면 세계 토로나 다양한 시각에 따른 서사의 입체감’과 마주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서사전략은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동시에 팩션이 보여주는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서간체 소설인 『모반의 연애편지』에서는 어떤 형국으로 나타날지에 관한 탐구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왕과 중전, 종친, 대신 그리고 내시부와 내명부의 다양한 인물들은 명분과 윤리 그리고 규율이 빚어내는 공적,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만, 언제나 그들 삶의 무게 중심은 그런 삶의 수면 아래로 감추어진 욕망과 공포로 상징되는 어떤적 삶의 진실에 전적으로 경도되어 있다. 총 84편의 편지를 꿰뚫는 저번의 공통적인 맥락은 삶에 있어서의 욕망과 공포의 섬뜩하고 치명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

*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인데, 세조의 등극과정에서 일어난 계유정난과 정난공신 책봉으로 상징되는 ‘살육과 징벌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함께 ‘신분적 비약에 대한 광적인 욕망과 집착’이 소설 속 삶과 역사의 유일하고 전적인 화두이다.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 두 사람 간의 가장 내밀한 의사소통 수단인 서신이야말로 욕망과 공포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진솔한 토로 혹은 재현이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음모와 거사에 얽힌 그들 삶을 풀어가는 버팀목이자 밑받침이고, 동시에 욕망과 공포가 빚어내는 삶의 다양한 변주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점은 한층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죽음과 같은 참혹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그런 비밀을 안간힘을 다해 지켜내면서도 스스로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려면, 서신은 가장 절대적인 수단(욕망과 공포를 고백하고 토설하는 장이자 밑받침)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서신을 통한 삶만이 가능했었을 그들 삶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반의 연애편지』가 일련의 살인사건을 벌여나가는 음모의 집단과 그들을 추적하는 사건조사자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지 않는 점은 서간체 소설과 왕이 꾸민 음모라는 특이한 사건설정에 관련되는데, 이런 제약을 벗어나 팩션 특유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반의 연애편지』는 i) 비기(秘器)를 다수로 확장하고, ii)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 전개를 보장하는 트릭을 설정하며, iii)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제한된 시각에 포착된 정보만을 드러내어 비밀의 다양하고 심원한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또 4개의 비기들은 『모반의 연애편지』에 등장하는 제 세력 간의 대립을 복잡하면서도 팽팽한 힘의 균형으로 이끌어 재미를 보장하는데, 비기 속에 담긴 비밀이란 것이 권력이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고, 서로의 약점을 비기를 통해 움켜질 수 있는 설정이어서 그만큼 대결구도는 힘의 일방적 우위로 흐르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서신이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암묵적 인식이 넘치는 점과 관련하여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이고 극적인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개연성이라는 축쇄를 뛰어넘어 사건의 극적 변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미를 불러온다. 동시에 팩션이 마련한 허구의 세계를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새로운 서신들이 공개될 때마다 밀약의 비밀이 간직한 전모는 새롭게 구성되며, 숨겨진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밀약과 음모의 뿌리 깊고 음험한 실체의 발견이 주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거듭된 반전이 주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다는 발견의 재미를 통해 감동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전략으로서 팩션에 설정된 허구의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값하고, 동시에 혼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불교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역사관의 명백한 현시를 위해 『모반의 연애편지』는 사료를 음모론적 시각에 묶

어둔다. 즉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사료들을 세조가 왕위 찬탈을 위해 꾸민 음모라는 틀 속에 철저히 복속시킨다. 음모론에 설득력 있는 역사적 개연성을 주기 위해 세조의 광폭한 권력욕이 태생적인 성정으로 강조되며, 세조는 정치적 술수가 풍부한 음험한 모반자로 집요하게 그려진다.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가 불교진흥과 관련이 없고, 세조의 왕권찬탈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사용(私用)되었다는 역사가관이 드러나는 서신에서는 그러한 역사가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역사적 사실(fact)을 들여다보는 제 3의 역사해석자가 등장(특별한 당파적 입장에서부터 초연한 중립적 해석자라는 의도적 꾸밈)하고, 그 역사해석의 보편성을 연출한다.(주제어 : 팩션, 서간체 소설, 정치적 함의, 비기, 음모론, 서사전략, 욕망, 공포, 오해, 추리물, 역사가, 역사적 개연성)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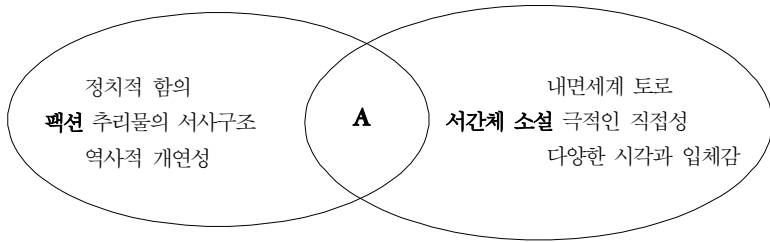
『모반의 연애편지』¹⁾는 세조의 후궁 소양 박씨가 세조의 조카인 귀성군에게 보낸 연서사건을 단초로 하여 궐안팎에서 벌어진 권력투쟁을 그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소양 박씨의 연서사건, 월인석보의 발간, 훈민정음 창제 등의 역사적 사실과 세조, 정인지, 신숙주, 정희왕후, 신미대사 등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고, 여기에 불교 지도층 인사들의 모임인 백팔회, 세조와 백팔회의 밀약, 방비리나 고아라 같은 궁중 환관이나 나인 같은 작가의 상상력에 따른 허구적 사건이나 인물이 더해지니 최근에 성행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인 팩션(faction)의 전형이다.

동시에 『모반의 연애편지』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84통의 편지만으로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이다. 세조대에 궐내외의 36명의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서신들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작자인 김다은은 『이상한 연애편지』(2006),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2008), 『모반의 연애편지』(2010)로 이어지는 일련의 서간체 소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서간체 소설은 소설의 서사를 다양하게 변조’할 수 있고,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편지 특성상 내부 심리묘사에도 적절’하며 ‘말투 등

1) 김다은, 『모반의 연애편지』, 생각의 나무, 2010.

으로 인물 캐릭터를 드러내기 용이'하다는 점을 분명히 내세우며 서간체 소설의 성행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결국 『모반의 연애편지』는 그간 픽션이 추리물의 구조를 따라 긴박감 넘치는 대결구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감어린 내면을 토로하는 서간과 어울리지 않는 면과 함께 서간체 소설 역시 가장 득의의 강점인 개인의 내면세계 토로와 사과의 유연한 표출이 용이함에 기대어 역사적 사실의 조명에는 무심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양식실험이라 하겠다. 따라서 픽션과 서간체 소설의 양식적 특징이 마주치는 지점에 대한 탐구는 곧 바로 『모반의 연애편지』의 핵심적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픽션과 서간체 소설의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픽션과 서간체 소설이 어우러지는 서사전략을 함께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두 동심원이 교차하는 A에 대한 탐색이 될 것이다. 첫째는 소설 속에 그려진 세조조의 역사적 사실과 당대인들의 삶을 가장 뾰족하게 드러내는데 서간체 소설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으로, 당대를 가로지르는 시대적 명제와 당대인의 삶을 규정짓는 가능자가 무엇인지와 그것을 드러내는데 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는 픽션에서 '정치적 함의가 큰 의문의 사건이 사건조사를 통해 마침내 의외의 비밀을 드러내는 추리물의 서사구조'가 '서간체 소설 양식이 지닌 내면세계 토로나 다양한 시각에 따른 서사의 입체감'과 마주치는 지점에서 보여주는 서사전략은 무엇일지 하는 것이다. 동시에 픽션이 보여주는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서간

체 소설인 『모반의 연애편지』에서는 어떤 형국으로 나타날 지에 관한 탐구 역시 주목하여야 한다.

2. 욕망과 공포

『모반의 연애편지』는 궁궐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일상적 삶이 그친 자리에서 벌어지는 어둡고 음험하며 각별한 그래서 밖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위험한 삶의 국면을 드러내고 조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왕과 중전, 종친, 대신 그리고 내시부와 내명부의 다양한 인물들은 명분과 윤리 그리고 규율이 빚어내는 공적,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만 언제나 그들 삶의 무게 중심은 그런 삶의 수면 아래로 감추어진 욕망과 공포로 상징되는 이면적 삶의 진실에 경도되어 있다.

총 84편의 편지는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다양하다. 왕↔내시부, 왕↔불교계, 대신↔대신, 불교계↔불교계, 종친↔종친, 왕↔종친, 후궁↔종친, 내시부↔내시부, 내명부↔내명부, 내명부↔중전, 후궁↔종친 등 다양한 서신이 등장하며, 그 모든 서신들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엮어내는 각별하고 차별적인 삶에 치열하게 매달린다는 점에서 변별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서신들을 꿰뚫는 저변의 공통적인 맥락은 삶에 있어서의 욕망과 공포의 섬뜩하고 치명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왕에서 내시부의 내시에 이르기까지, 중전에서 내명부의 나인에 이르기까지 비록 그들이 처한 위상에 따라 욕망과 공포의 실상은 다르지만 욕망과 공포가 그들 삶을 결정짓는 무게와 힘은 치명적이고 결정적이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욕망과 공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단종조, 세조조로 이어지는 당대 역사적 현실과 결정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음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모반의 연애편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의 저류에는 근본적으로 세조의 왕위찬탈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핵심적인 서사축의 하나인 소용 박씨(세조의 후궁) 연서사건도 ‘연정’보다는 ‘모반’에 깊이 얽혀 드는 정치적 시각 혹은 접근이 중요하게

드러난다.

단종과 세조조의 역사를 세조의 왕위 찬탈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병약했던 문종이 재위 2년 3개월 만에 서거하자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 하였는데, 마땅히 수렴청정을 할 계비가 없는 상태에서 황보인, 김종서에 의한 황표정사가 행해지는 마당에 세력을 키운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대신들을 참살하며 왕권을 틀어쥐고, 그 과정에서 대신들과 가까웠던 정적 안평대군과 금성대군을 주살하고 결국은 단종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로 압축되는데, 『모반의 연애편지』는 이런 시각의 역사적 해석으로부터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자연히 작지는 계유정난과 정난공신 책봉으로 상징되는 역사적 격변을 당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주지하다시피 계유정난은 1453년 10월에 수양대군이 거사를 일으켜 당시에 병권을 쥐고 있었던 김종서를 철퇴로 죽인 후 영의정 황보인, 병조판서 조극관, 이조판서 민신, 우찬성 이양 등을 왕명을 핑계로 대궐로 불러들여 참살하고, 친동생 안평대군을 봉당 모의의 주역으로 몰아 강화도에 유배 시켰다가 사사하고, 금성대군마저 죽였으며, 단종 역시 유배 후 서인으로 전락 시킨 후 죽음을 맞게 한 것이고²⁾ 정난공신 책봉은 거사에 참여한 정인지, 권람, 한명회, 양정 등 43인을 정난공신에 책봉한 것인데, 앞으로 일으킬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었으며, 신분적 벽도 개의치 않고 중용한 사건이다.

『모반의 연애편지』에는 이런 사실들이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로 기록되고 있는데, 자연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왕조 단종 조와 세조조 편의 기록은 끊임없는 모반과 살육의 기록이 된다. 조선 개국이 불과 5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벌어진 왕위찬탈인데다가 정당한 왕권계승을 한 단종을 거세하고 등극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니 변란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왕조차 군으로 강등된 채 자진 혹

2) 옥망과 공포는 세조조의 가장 강력한 시대적 분위기이자 당대인들의 삶을 결정짓는 기제였을 터인데, 그 사실은 이미 조선왕조 실록의 세조조 편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만을 간추려 보아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은 교살되고 수많은 왕실의 종친과 후궁, 대신들이 비참한 죽음 혹은 폐서인 되는 참혹한 현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경복궁지기였다가 세조의 왕권찬탈에 기여해 세조조 최대 실권자로 부상한 한명회의 예처럼 정변의 수많은 공신들의 부상은 모반에 얽힌 ‘공포’와 조선조 유교이념에 따라 강고하게 고착화 되어가던 신분의 벽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욕망’의 자장을 폭풍처럼 늘려 놓은 경우가 된 것이다. 세조조의 시대적 분위기는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모반의 연애편지』는 그 점에 전적인 관심을 둔 것인데, 그 구체적 실상을 보기 위해 먼저 세조의 서신 한 편을 살펴보자.

임금이 백팔장에게

그래서 소용 박씨와 자네가 그동안 무슨 연락을 취해왔던 것은 아닌가, 나 모르게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지. 겉으로는 소용 박씨가 귀성군에게 보낸 연애편지 같지만 실제로는 모반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이 왔네. 연애편지로 가장한 모반, 모반의 연애편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네. 정말 귀성군과 백팔장이 의기투합했고, 소용 박씨가 개

단종 1년 1453년	9월 25일	황보인 종 가동이 권람의 종에게 안평대군 등의 역모 음모를 말한다.
	9월 29일	수양대군이 한명회, 권람, 양정, 홍달손과 함께 거사일을 10월 10일로 정하다.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나 김종서가 죽다.
	10월 15일	이징옥이 난을 일으키다.
단종 2년 1454년	8월 28일	계양군 이증이 금성대군의 역모 가능성을 말한다.
단종 3년 1455년	6월 11일	금성대군, 한남군, 영풍군, 정종, 헤빈 양씨와 상궁 박씨를 귀양 보내고, 수양대군이 즉위하다.
수양 1년(세조실록은 즉위년을 수양 1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1455년	11월 9일	헤빈 양씨 등 18명을 교수형에 처하다.
세조 2년 1456년	12월 30일	대사헌 원효연 등이 단종과 성삼문 등의 모의를 거론하다.
세조 3년 1457년	6월 21일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여 영월에 유배시키다.
	6월 26일	현덕왕후를 폐서인하고 개장하다.
	10월 21일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송현수를 교형하다. 이 소식을 듣고 단종이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하니 예로서 장사를 지내다.
세조 11년 1466년	4월 12일	봉석주의 역모사건이 일어나다
	9월 4일	소용 박씨가 귀성군 이준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가 발각되다
세조 12년 1456년	6월 8일	술자리에서 양정의 세조 퇴위 권유사건이 일어나다
	6월 12일	양정을 참수하다
세조 13년	5월 16일	이시애의 난이 일어나다

입되었는지 말일세. 소용 박씨는 내가 친국했네. 누구와 짝 것이냐고 물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만 반복했네. 내가 아는 한 소용 박씨의 그 말 속에는 거짓이 없었네. 백팔장이 누구냐고 물어도 절대로 밝힐 수가 없다고 하더군. 되풀이 되는 국문과정에서 소용 박씨는 마치 백팔장이 귀성군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 말이지. 하지만 왜 그런 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용 박씨가 귀성군을 입에 올릴 때마다 표정이 온화해진다는 사실이었네.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본능 같은 것이었지. 남자로서 느낄 수 있는 본능 같은 것이었지. 소용 박씨는 귀성군을 단순히 시조카로만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지.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불길처럼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 서찰을 연애편지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네. 모반이라고 여기고 백팔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자네가 드러나게 되고, 백팔장 모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와 백팔장 모임의 관계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대로 소용 박씨가 귀성군에게 쓴 연서라고 마무리를 지었네. 사람들이 그 서찰을 연서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네.(442-444쪽)

조선왕조실록 세조 11년(1465년) 9월 4일에는 소용 박씨(세조의 후궁)가 귀성군 이준(세조의 조카)에게 연서를 보냈다가 발각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 사실을 단초로 하여 창작된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상기의 예문은 세조가 당대 불교계의 거두인 백팔장에게 보낸 서찰이다. 이 서찰에서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세조 임금이라는 위상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자신의 여인이 친조카에게 연정을 품었고, 그 연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충격적 사실에 모멸감으로 몸부림치는 한 편으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군왕이자 남자로서 치욕적이게도 스스로 명시적으로 연서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욕망의 덫에 걸린 불우한 한 인물의 고뇌를 그대로 드러내며, 특히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후궁이었던 소용 박씨와 자신의 종친인 귀성군,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등극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승려 백팔장 모두를 음모를 꾸미는 모반자로 의심하며, 스스로 그들의 모반으로 왕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그런 공포감을 내밀하지만 진솔하게 고백한다.³⁾

3) 사실 세조가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것이 당대 유교이념에 거스르는, 그래서 정치적 충돌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미 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수양대군 시절)에 실록에까지 기록될 정도이다.

세조의 모든 행동과 의식 속에는 욕망과 공포가 그 강력한 힘을 거리낌 없이 분출하며 범람하는 형국이 그대로 펼쳐지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기제로 등장한다. 세조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은 그 욕망과 공포의 자장 속에서 해석되고 규정된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공포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토로할 수 있는 서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대체할 수 없는 수단이자 목적인 것이다. 세조는 담아두면 감당하기 힘든 질곡으로 다가오는 욕망과 공포의 짐을 고백하고 토설하는 장이 필요했던 것이며 그것만이 그의 삶을 견뎌줄 버팀목인 것이자, 왕위 찬탈과정에서 자신과 생사를 같이한 승려 백팔장과와의 관계로 보자면 자신과 그가 벌여온 음모와 거사에 대해 다짐하고 위협하는 밀약서이자 보충서의 장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반의 연애편지의 모든 인물과 그들이 겪는 사건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인물 \ 삶의 기제	욕망	공포
소용 박씨	귀성군에 대한 연모 왕자군 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	귀성군의 배신 왕자군 아지의 출생비밀과 죽음의 배후가 영원히 미궁에 빠짐
귀성군	소용 박씨에 대한 연정	세조의 복수
임영대군	종친으로서의 힘	세조가 모반의 괴수로 치죄 중전의 계약
백팔장	고려조 불교계의 위상을 부활	세조의 배신 백팔회 회원들의 위협 거사의 비밀이 밝혀짐
안건	권력에의 동경	안평과의 모반으로 얽혀짐
만우	불교계의 권력 회복	세조와의 모반이 밝혀지는 두려움

“이에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불교에 빠져서 상감님 뜻에 앞서서 불교교리를 가르치고, 궁궐근방에 불당을 세워서 온 국민이 극간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나 아직도 상감의 뜻을 돌리지 못하여 상감의 덕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이것은 실로 두 대군이 불교를 가르친 과오다” 세종실록 30년 8월 5일 무오조

정인지, 신숙주	권력에의 추종	안평과의 교류가 모반으로 치죄된다 는 두려움
덕중(승려)	불교의 위상과 힘을 회복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두려움
고아라	내시부 방비리에 대한 연정	소용 박씨의 유서이자 연서 때문에 모반으로 몰리는 공포

소설의 배경이 된 세조조의 불교계 지도급 인사들로 나오는 백팔회의 회원들은 한결같이 고려 때에 하늘을 찌르던 불교의 위세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그 존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조선 건국초의 유교 신봉에 따른 교세의 위축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는 역으로 불교 중흥에 대한 편집적인 욕망으로 치환된 채 도덕적 명분이나 종교적 사명까지도 뛰어넘어 버리며 정치적 거래까지도 주저하지 않게 만든다. 그들의 모든 삶은 철저히 그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삶의 성격에서 의미까지 한 치의 비켜감 없이 그로부터 규정받고 만들어진다.

동시에 소용 박씨의 연서사건으로 촉발된 세조와 불교계의 긴장감은 모반에 대한 세조의 의혹이 더해짐에 비례해 불교계의 피해의식에 걸친 공포감을 불러 오는데, 세조가 변심하여 다시 불교탄압에 나서거나 혹은 세조와의 정치적 거래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종교로서의 입지마저도 송두리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두려움으로 확산된다.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은 그런 공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복속된다. 급기야 그 공포의 끝자락에 몰려 불교중흥이라는 대의로 결집되었던 백팔회 회원들은 각자 서로를 의심하는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정치적 암살까지도 염두에 두게 된다.

진하, 승려 덕중의 동태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승려 덕중은 백팔회 모임을 만든 원동력이자 상징적인 ‘일장—張’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모임에 대해 회의를 가지면 그 여파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주상전하의 친필 이름이 든 밀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가 그 종이와 밀약서 원본임을 알지 못하니, 이번 모임에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돌려받아 주상전하와 소신이 함께 소각해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설령 그 중요성을 몰라 승려 덕중이 밀약서를 훼손했거나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이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 승려 덕중에게 그 죄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승려 덕중을 경계하는 이유는 최근 그의 행태가 수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최근 백이장, 백일장 짝패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땡추 두목인 백이장이 갑자기 우리모임을 떠나 버렸고, 백일장은 그를 찾아 떠난 상태입니다. 백일장이 승려 덕중에게 보낸 서찰에 따르면, 백이장과 자신의 신변이 위태로운 것 같으니 덕중이 보관하고 있는 밀약서 원본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그런 요사를 부탁하다니, 필요에 따라 백이장과 백일장 짝패를 제거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은 셈입니다.** 물론 중간에서 서찰을 가로채 읽고 도로 넣어 두었기에 양쪽 모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상전하, 백팔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아뢰옵니다. 『월인석보』속 **‘충일백팔장’의 비밀! 이 큰 비밀을 백팔장 모임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더 큰 비밀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려 덕중이 백일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비밀을 캐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상전하의 안위와 불교의 영광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승려 덕중에게서 밀약서 원본을 돌려받고, 그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잘 얼러두는 일인 듯합니다. 그가 전국적으로 뻗어 있는 금강산 땡추들의 조직과 손잡아 다른 뜻을 품지 않도록 손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 **백일장과 백이장을 이용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승려 덕중까지, 그 누구건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비을 날까지 옥체 보전하소서. (굵은 글자-필자)

1466년 7월 15일

백팔장 배상

백팔회의의 거두인 백팔장이 세조에게 보낸 서신인데, 세조에게 덕중, 백일장, 백이장, 금강산 땡추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반으로 치죄 될 수 있는 그들의 행적에 대해 고변하고 아울러 그들의 제거에 대해서도 시기와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특히 덕중이 누구인가. 덕중은 세조가 대군시절 은혜를 베푼 인연으로 세조를 지근거리에서 주군처럼 모시게 된 인물로 불교계 전체가 불교계와 왕실의 관계복원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맡긴 인물이며,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고평하는 인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팔장에게는 ‘공포’가 가장 우선적인 삶의 덕목이니, 자신과 세조 사이의 정권찬탈을 두고 벌어진 은밀한 밀약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백팔회 회원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불교계를 위협에 빠뜨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아가서는 불교의 조직이 모반에 동원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어떤 명분이나 금기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며 유일한 삶의 기제로 작동한다.

서신 속에 담긴 폭력과 모략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에서부터 왕에 대한 은밀한 헐박까지 백팔장은 공포에 시달려 초조함과 광포함을 보이는데, 세조에 벌어진 수많은 모반과 살육, 그리고 불교에 대한 폭압적 박해 속에서 그 공포의 실체와 정서는 섬뜩하리만치 분명한 현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공포’가 갖는 삶의 무게는 종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조의 동생인 임영대군은 아들 귀성군이 소용 박 씨의 연서의 당사자로 밝혀지자 세조의 질투심에 따른 복수의 칼날을 두려워하는데, 연서가 모반과 관련될지도 모른다는 세조의 의혹이 커지자 역적죄로 인한 멸문지화의 공포에 휩싸인다. 특히 임영대군이 갖는 공포는 설령 연서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왕권의 강화라는 정치적 이유로 자신과 아들이 아무런 죄 없이도 제거될 수 있다는 강박적인 공포감 - 수양이 왕권찬탈을 위한 모반에 자신과 아들을 엮으려 한다는 점, 세조가 왕권찬탈의 경험을 통해 종친이 역으로 가장 왕권에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거라는 확신이다.

이처럼 『모반의 연애편지』는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욕망과 공포를 두고 있는데, 삶과 역사는 그 자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삶과 역사는 욕망과 공포가 꾸려가는 기록이라는 신념이다. 특히 세조조처럼 모반과 살육, 그로 인한 신분적 동요가 격심한 시기에는 그런 사실이 삶의 모든 국면에 체화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모반의 연애편지』의 왕에서 내시와 나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물들은 욕망과 공포에 사로잡힌 삶을 영위하는데, 특히 공포는 죽음까지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강박적 두려움에 가까우며,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삶과 역사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충성이라 믿는 것이다.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 두 사람 간의 가장 내밀한 의사소통 수단인 서신 이야말로 욕망과 공포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진솔한 토로 혹은 재현이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욕망과 공포가 빚어내는 삶의 다양한 변주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점은 한층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죽음과 같은 참혹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그런 비밀을 안간힘을 지켜내면서도 스스로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험겨운 사투를 벌여나가기려면 서신은 가장 절대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서신을 통한 삶만이 가능했었을 그들 삶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모반의 연애편지』의 서간체 소설 형식은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다.

3. 서간체 팩션의 서사전략

한국 팩션의 전형적인 서사구조는 <의문의 사건발생·사건조사·의외의 비밀폭로>라는 추리물의 서사구조를 따른다. 일국 혹은 아시아의 정치적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쟁투를 담을만큼 정치적 함의가 크고⁴⁾, 연쇄살인이나 정치적 음모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한결같이 박진감이 넘친

-
- 4) “한국의 팩션에서 그 비밀은 거대한 음모와 동일시되는 것에 볼 수 있듯이 절대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격돌이 생명이다. 치정이나 금전적 다툼 같은 사소한 개인적 이해관계는 표면으로 부상할 틈이 없으며, 대의명분이나 정치적, 윤리적 신념 혹은 국가적, 세계적 안위 같은 웅대한 목표가 전면에 나선다. 『진시황 프로젝트』에서는 한 비밀의 책자를 두고 진시황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중국 국수주의와 동북아 패권을 쥐려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울러 한민족의 정치적 비상을 노리는 한배회가 생사를 건 격돌을 벌이며,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언어에서부터 과학문물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자주와 개혁을 노리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최만리, 심중수로 대표되는 사대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와 정치적 일전을 벌인다. 또한 『방각본 살인사건』과 『원행』은 모두 정조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방각본 살인사건』이 수구세력과 실학파의 대립 속에 수구파의 음험한 음모와 정조의 어려운 정치적 처신을 다루었다면, 『원행』에서는 구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조와 체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수구 세력이 목숨을 담보로 한 절체절명의 충돌을 벌인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나 목적의 끝에는 언제나 한 국가 혹은 세계의 절대권력에 대한 패권이 도사리고 있으며, 조직과 세력을 동원함과 동시에 수단을 목적으로 종속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혹독할 정도로 정치적이다. 그래서 음모와 술수가 판치며, 힘의 충돌이 횡행한다.”
 강현구, 『문화콘텐츠의 서사전략과 인문학적 상상력』, 글누리, 2009, 202쪽.

다. 비교적 선악의 구분이 명료해 사건조사자로 나오는 선의 축이 야망과 음모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를 추적, 응징하는 이야기이다.

한국 팩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세종, 정조 시의 역사적 사실과 변용은 강력한 왕권의 그늘 속에 담긴 치명적, 운명적 결함을 적시하며 세 세력의 치열한 정치적 패권다툼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늘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마침내 예상치도 못했던 범죄자 혹은 조직의 음험하고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이 밝혀진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추적자들의 노정에는 늘 긴장감이 따르고,⁵⁾ 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적 격돌에는 그만큼 엄청난 무게감이 실린다. 특히 세종처럼 한글창제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정치적 음모에 휘말리는 팩션의 경우에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건조사자의 임무가 완결되는 의외의 비밀 폭로 장면에는 역사를 지켜낸 충만한 안도감이 한껏 부풀려진다. 우리가 팩션에 열광하는 이유이다.⁶⁾

그런데 『모반의 연애편지』는 이들과 사뭇 다른 점이 있다. 의문의 사건을 벌여나가는 세력과 사건조사자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그들의 역동적 움직임이 긴장감을 유발하지도 않는다. 일련의 살인사건을 일으키며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는 불의의 집단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을 제압하고자 치열한 추적을 벌이는 사건조사자가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왕의 후궁이 조카뻘 되는 왕의 조카인 군에게 연서를 보내는 사건이

5) 특히 팩션은 사건조사자가 사건의 중심에 휘말려들어 긴박한 위협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팩션의 주인공들은 흔히 사건조사자이자 용의자이자(잠재적인) 희생자의 역할을 동시에 떠 맡는 경우가 많다.

박진, 「우리는 왜 팩션에 열광하는가」, 『문학과 사회』, 2005, 겨울호, 227쪽.

6) 팩션의 성행 이유는 역사학계의 자기반성적 시각에서도 제기된다.

‘팩션으로서의 역사서술은 근대 사실주의에 의해 상실된 ‘꿈꾸는 역사’를 되찾아 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역사연구의 중심은 부르크하르트 말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럴 것인 인내하며 노력하며 행동하는 인간”이 돼야 한다. 이 같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상실이 오늘날 역사학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러한 이야기의 결핍을 보상하려는 욕구로부터 ‘꿈꾸는 역사’로서 팩션에 대한 열광이 생겨났다’

김기봉, 「팩션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63호, 2007.6, 17-18쪽.

시발이 되어 궁궐내외의 여러 인물들이 자신이 관련된 각자의 비밀이 폭로 되지 않도록 조바심나는 경계를 펼치는 형국이다.

이런 사실은 무엇보다도 팩션이 역사적 사실에 작자가 상상력으로 만든 허구가 덧붙여질 수는 있어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소용 박씨가 쓴 연서는 세조실록에 실릴 만큼 큰 파장-왕의 후궁이 왕의 조카에게 공개적으로 연서를 보냈다는 사실은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당대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사실임은 틀림없다. 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연서사건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세조 13년(1467년)에 연서당사자인 귀성군을 겸오위도총관으로 임명할 만큼 제한적인 충격으로 끝났고, 『모반의 연애편지』에서도 세조가 모반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연서사건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소설의 문면에 그려진 세조의 명에 따른 소용 박씨의 국문장면이나 귀성군에 대한 추적은 살벌한 충돌이나 거친 몸짓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예상된 대로 밝혀진다는 담담한 확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정작 더 중요한 비밀은 세조와 백팔회 특히 백팔장과 나누었던 세조의 왕권획득 과정에 나타난 밀약이다. 왕권찬탈이 절실했던 세조와 참담한 불교탄압을 뚫고 불교계의 중흥을 이루어내려는 백팔회가 밀약을 통해 하나로 뭉쳐 세조의 등극과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된 불교중흥의 밀약에 대한 실천을 일구어낸 비밀이 핵심이다.⁷⁾ 자연히 그

7) 밀약의 핵심은 세조와 불교계 간에 월인석보의 서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둠으로써 훈민정음을 부처에게 바치고 그에 대한 공덕으로 세조의 왕위 승계를 보장 받는다는 것인데, 세조가 왕권찬탈을 위해 그 일을 주도했는지, 불교계와 밀약이 있었는지에 관한 점을 제외하면, 공덕을 쌓아 소원을 성취한다는 서사의 설정은 설득력 있는 개연성을 갖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부처를 찬양하고 포교할 수 있는 내용의 <월인석보>를 刊印한 사실은 포교의 차원보다는 공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왜냐하면 사경하는 일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廣宣流布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협의의 의미에서는 공덕이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목적은 공덕에 있는 것이다. 계속 발견되고 있는 <월인석보>가 대부분 佛腹 속에서 나오는 이유도 사경한 불경을 불상과 불탑 속에 공양하면 부처님의 보호와 재앙의 소멸과 현세의 복락을 이룩한다는 사경공덕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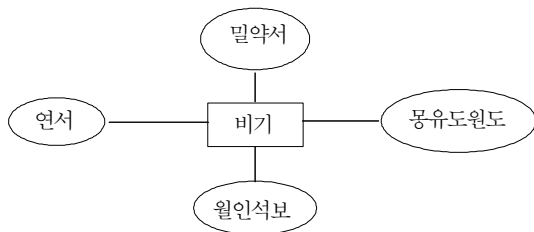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을 유지하려는 왕과 백팔장 그리고 그 비밀에 근접하려는 불교계의 다른 인물들과 소용 박씨의 대립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보통의 픽션에서처럼 누군가를 사건조사자로 내세워 밀약서의 비밀을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우선 왕이 만든 비밀이다 보니 범인이 만든 불의를 추적하듯이 비밀을 헤집고 다닐 수도 없고, 설령 만일 비밀의 실체를 알았다더라도 그 폭로란 왕을 제거하는 모반일 때야 가능할 것인데, 만일 그런 경우라면 세조에 대한 치죄 혹은 왕권 교체 같은 역사적 사실이 만들어져야 할 텐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과의 명백한 충돌이어서 픽션으로서도 감당기 힘든 일인 것이다. 또한 비밀이란 것이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음모가 현재진행형이어야 박진감이 넘칠 터인데, 이미 왕권을 쥔 세조 입장에서야 더 이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음모가 필요 없는 것이어서 이미 과거형인 비밀에 대한 조용한 탐문적 접근만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서간체 소설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탄생한다. 소설에 픽션 특유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반의 연애편지』는 비기(秘器)를 다수로 확장하고,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 전개를 보장하는 트릭을 설정하고,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제한된 시각에 포착된 정보만을 드러내어 비밀의 다양하고 심원한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우선 픽션에는 치명적 비밀이 담긴 책이나 증표와 같은 비기(秘器)가 등장하여, 그것을 차지하려는 충돌이 그려지기 마련인데, 모반의 연애편지에는 놀랄게도 무려 4개의 비기가 등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연서, 밀약서, 그림(몽유도원도), 서책(월인석보)이 그것이다. 서신의 주체에 따라 비밀을 담은 4개의 비기가 그 정체를 서서히 드러내고, 그에 따라 그것들을 둘러싼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놀라움이 박진감을 만들어내는 형식이다.

미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유정일, 「<월인석보>의 체제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 『불교문화연구』 제 3집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6, 230쪽.



소용 박씨가 귀성군에게 보낸 연서는 과연 그것이 연서인지 모반의 문서인지, 왕과 백팔장 사이에 나눠 가진 밀약서는 문종의 죽음과 왕권찬탈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안전이 그린 몽유도원도와 그것에 붙여진 찬시는 어떤 의미였고 그 실체를 드러낼 것인지, 월인석보에 언급된 충일백팔장은 무슨 밀약과 관련이 있는지가 다양한 인물들의 서신이 공개될 때마다 파란을 겪으며 그 놀랄만한 비밀을 서서히 그러나 돌연하게 드러낸다.

하나같이 개인 혹은 집단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치명적인 것이고, 그 비밀은 당사자만이 알거나 지킬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수많은 서신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다양한 비밀들은 그 흥미롭고 놀라운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왕권찬탈에 개입된 비밀, 불교중흥에 대한 밀약과 관련된 비밀, 종친의 야망과 영합한 대신들의 비밀, 애육에 사로잡힌 연정과 관련된 비밀 등이 비기와 서신의 역할에 기대어 꺾어진 박진감을 만들어낸다.

또 4개의 비기들은 모반의 연애편지에 등장하는 세 세력 간의 대립을 복잡하면서도 팽팽한 힘의 균형으로 이끌어 재미를 보장하는데, 구체적으로 연서는 왕-종친-후궁 간의, 밀약서는 왕-불교계 간의, 월인석보는 왕-불교계-대신 간의, 몽유도원도는 왕-대신-종친 간의 복잡하고 전면적인 대결구도를 생성하고 있으며, 비기 속에 담긴 비밀이란 것이 권력이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고, 서로의 약점을 비기를 통해 움켜쥘 수 있는 설정이어서 그만큼 대결구도는 힘의 일방적 우위로 흐르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몽유도원도를 통해서만 안평대군의 제안으로 그려진 몽유도원도에 찬시를 붙인 모든 대신들을 모반죄로 몰아갈 수 있는 구도가, 월인석보와 밀약서를 통해서만 왕과 불교계가 서로 간에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무

기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밀약서를 우연히 손에 넣은 소용 박씨에게는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그리고 연서를 통해서만 세조가 종친과 소용 박씨 그리고 불교계를 모반으로 몰아 부칠 수 있지만 다시 백팔장이라는 존재와 관련해서는 수세적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기막힌 반전이 치열하면서도 팽팽한 그리고 흥미로운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 서신이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암묵적 인식이 넘치는 서신은 당사자인 두 사람 사이에서도 혹은 타인의 경우에도 진의와 다른 오해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모반의 연애편지』에서도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이고 극적인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개연성이라는 족쇄를 뛰어넘어 사건의 극적 변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미를 불러온다는 점 뿐 아니라, 팩션이 마련한 허구의 세계를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조는 백팔장과 정치적 거래를 도모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데 불교계가 도움을 주고 자신은 불교의 진흥을 담보한다는 밀약이다. 서로간의 신의를 위해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이 들어간 밀약서를 만드는데, 각자 상대의 이름이 들어간 부분을 파지해 간직하고 있다가 서로 간에 믿음이 확인되면, 세조와 가장 지근 간에 있던 승려 덕중에게 서로가 간직한 밀약서를 맡기기로 약속한다. 하지만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귀성군에게 이 일을 부탁하지만, 귀성군이 사가(私家)에서의 이름이 덕중이었던 세조의 후궁 소용 박씨에게 밀약서를 잘못 전달함으로써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귀성군의 ‘오해’로 빚어진 파란은 다시 소용 박씨가 그 서신을 귀성군이 자신에게 보낸 연서로 ‘오해’하고 다시 그 속의 백팔장이라는 서명을 귀성군이 귀성군 자신을 은밀하게 지칭하는 별칭으로 ‘오해’함으로써 걸잡을 수 없는 사건의 극적 변전으로 이어진다. 소용 박씨가 조선 왕조 실록 세조 11년에 기록된 대로 조카인 귀성군에게 거의 반공개적으로 연서를 보낸 그 황당한 사건이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 세조가 단순히 도덕적 품행의 문제로 국문하는 장에서 느닷없이 소용 박씨가 백팔장이라는 이름을 부르자, 세조는 소용 박씨의 오해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이 자신의 치명적 비밀을 토설한 게 아닌지, 혹은 백팔장과 소용 박씨가 자신

이 모르는 정치적 거래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오해’를 함으로써 정치적 모반의 문제로 확대된다.

세조는 모반의 실체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되고, 바로 정치적 행동으로 들어가는데, 백팔장, 소용 박씨, 귀성군의 모반 가능성에 대한 탐문을 시작하고, 세조의 정적이자 동생인 안평대군과 관련된 몽유도원도를 찾기 시작함으로써 곧 닥칠지도 모르는 정변 혹은 참혹한 살육을 준비한다. 동시에 소용 박씨가 밀약서를 수중에 넣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세조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인한 대결구도의 불균형성을 일거에 무너뜨리며, 팽팽한 긴장을 생성해 낸다. 후일 모든 진말을 알게 된 소용 박씨가 자신의 연인인 귀성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해진 밀약서를 귀성군에게 비밀스럽게 전하고자 한 사건의 설정도 세조와의 대결구도를 여전히 긴장감 있는 대결구도로, 아울러 귀성군의 건재라는 희한한 역사적 사실을 개연성 있게 포장하는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셋째로 팩션에 숨은 역사적 비밀을 다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다양한 시각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들여다보는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비밀이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들이 끊임없이 노정되는 흥미를 불러온다. 모든 인물들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경위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솔직하게 고백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은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다.

구체적으로 세조와 정치적 거래를 했던 백팔회 회원들이 서로 간에 주고 받은 서신을 보면, 그들은 세조와 백팔회 간의 밀약에 대해 자신이 관여된 부분만큼 만의 정보와 이해를 갖고 있을 뿐이며 그것들이 서신을 통해 노정될 때마다 세조와 백팔회 간의 밀약이라는 소설 속 역사적 사실은 끊임없이 새롭게 전모를 구축한다.

발신자	수신자	서신의 내용
승려 만우	승려 턱중	- 안평대군을 옹립하기로 계획 - 꿈을 신탁으로 부풀림 - 몽유도원도에 절 그림 넣을 것 제안하나 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평대군 대신 수양대군을 택함 - 불교의 현자상속 논리로 수양대군을 설득 - 불교진흥의 대가로 수양의 등극을 정당화 해 줌
백장	백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수양대군의 등극이 목적이었음 - 만유를 이용하여 안평대군이 거사로 여겨지는 행동을 하도록 만들 - 만유가 진실을 모르도록 꾸밈 - 수양대군의 등극을 위한 모의에 불교계가 가담
승려 덕중	백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위를 주관하게 될 거라는 전언을 백팔장의 명대로 수양대군에게 전함 - 백성을 위해 만든 소리를 부처에게 바치려는 두 번째 전언 전함 - 이 모든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라는 세 번째 전언 - 안평대군 옹립의 계획이 있었음을 자신은 몰랐다는 토로
백삼장	백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팔장은 불교계의 중흥을 위해 수양대군과 가까운 승려 덕중을 이용 - 백팔장이 덕중이라는 범명을 내린 것은 수양대군의 사노이자 후일 후궁이 된 덕중(소용 박씨)과의 만남을 의도한 계획임
백팔장 대표 모임 회원	백팔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이장은 월인석보에 나온 형을 죽이는 아우 이야기를 문종과 수양대군의 관계로 여김 - 불교계가 수양대군에게 월인석보의 내용을 전한 것은 문종의 죽음을 부추기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 - 불교계가 문종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면 과란이 일 것임
승려 덕중	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일장이 한 세종대왕 어지를 108자로 수정하고 훈민정음 언해본을 월인석보와 묶는 작업은 백팔장이 세조에게 밀약한 것을 실천한 것임 - 백이장은 월인석보에 나타난 형과 아우의 모습 인연을 세조와 문종의 관계로 해석 - 백장과 백철장은 세조가 저지른 업보 때문에 두 왕자가 죽게 되리라는 소문 퍼뜨리는 역할 - 결국 불교계는 문종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비밀을 고백
백일장	백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팔회 회원들의 비밀을 엿어보면 밀약의 전모를 알 수 있음 - 백팔장 회원들의 모든 비밀이 모여져야 밀약의 실체와 전모를 알 수 있음

승려 만우가 승려 덕중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승려 만우는 불교계가 불교중흥을 위해 안평대군을 옹립하려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안평대군이 꿈꿈을 신탁으로 포장하려 했으나 안평대군이 불교계와의 약속을 어김으로써 무산되었는데, 다행히 수양대군이 불승을 구한 전력과 불경도감을 설치하

여 불경을 간행하는 불심에 주목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현자상속의 논리로 그의 왕권 도전을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불교계 중진들과의 명백하고 의도적인 계획하에 추진하였다고 밝히며, 그것이 바로 세조등극을 둘러싼 세조와 불교계의 밀약의 실체이자 전모라고 말한다.

이 때 서신의 문면을 보면, ‘우리는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을 놓고 저울질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안평대군을 다음 왕으로 세우자고 뜻을 모으고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는 안평대군이 그 꿈을 통해 신탁을 받았다고 믿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진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교를 일으키고 부흥시킬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왕이 불교의 도움 없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만 했다’에서 볼 수 있듯이 승려 만우가 양평대군의 옹립에서부터 수양대군의 옹립까지 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며, 또 그 사실이 애써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가 단순히 누군가의 밀명에 따라 비밀의 전모는 물론 채 단순히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서신을 접하는 과정은 곧 비밀의 전모가 밝혀진 문자 그대로 ‘의외의 비밀’이 발견된 추리구조의 결미를 본 듯한 발견의 재미가 충족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백장이 백팔장에게 보낸 서신을 보라. 백장은 만우의 역할이 수양대군의 등극을 명분 있게 만들기 위해 안평대군이 모반을 꿈꾸도록 부추긴 위장극의 꼭두각시 역할에 머물렀으며, 만우가 그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만우와 안평대군 모두 음험한 계략의 희생양이 돼버린 것이다. 백장이 이해하는 비밀의 실체와 전모이다.

이 역시 서신의 문면을 보면, ‘목적에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미끼였을 뿐이다’처럼 자신이 명백히 의도했고 관여했던 경험처럼 그려져 분명한 사실임이 강조되거나 ‘안평대군이 어린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것을 핑계 삼을 수 있도록, 수양대군이 명분을 가지고 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앞서 준비를 한 것뿐이다’, ‘그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이상을 알면 자신이 이용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미 불행해져 있는지도 모른다’처럼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 논거까지 알뜰하게 강조되니 비밀의 실체

와 전모는 온전히 이 서신이 확정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제 새로운 사실이 주는 충격에 싸이게 되고, 다시 그 반전적 서사가 주는 완결성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데 이런 서사적 완결성은 또 다시 파란을 겪게 되니 백삼장이 백사장에게 보낸 서신에 의해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지는데, 덕중은 수양대군과의 정치적 거래를 위한 가교역을 맡도록 이용되었으며, 수양에게 불교계의 전언을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것인데, 덕중의 역할은 이런 외형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팔장이 그에게 내린 덕중이란 범명은 수양대군의 사저에 있던 여종 덕중(후일 수양대군의 후궁 소용박 씨가 됨)의 이름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녀와의 만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역시 서신의 문면을 보면 ‘두 덕중은 수양대군의 잠저에서 인연으로 만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中略) 수양대군 사저에 큰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곳을 관리하는 여종 덕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로서 추오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급기야 승려 덕중이 백일장에게 보낸 서신에 이르면, 백일장이 세종대왕의 어지를 108자로 수정해서 훈민정음 언해본을 불교서책인 『월인석보』와 묶는 작업을 했고, 백일장은 『월인석보』에 나타난 형과 아우의 모습 인연을 문종 임금과 현왕의 관계로 재해석 하는 일을 했으며, 백장과 백칠장 짝패가 현왕이 저지른 업보 때문에 두 왕자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일을 맡았노라 고백한 점을 들어 불교계가 문종 임금의 죽음과 무관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밝힌다. 이제 그가 파악한 밀약의 전모가 만약 실제로 밝혀질 경우 세조와 불교계의 파국, 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만큼 충격적인 비밀의 핵까지도 드러난 셈이다.

결국 새로운 서신들이 공개될 때마다 밀약의 비밀이 간직한 전모는 새롭게 구성되며, 숨겨진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밀약과 음모의 뿌리 깊고 음험한 실체의 발견이 주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연속이다. 백

일장이 백이장에게 보낸 서신에 나와 있듯이 ‘이제 점점 다른 비밀들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니 서로 고리를 엮어가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의 전모가 밝혀진다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시각에 대한 진솔한 토로인 서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 양식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달리 말하면 『모반의 연애편지』가 서간체 소설 양식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살린 경우라 할 수 있겠다.

4. 역사관의 현시

팩션이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허구가 결합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팩션의 작가들은 자신이 설정한 허구가 비록 사료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 개연성이 충분한, 그래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분명한 것으로 꾸미기 마련이다. 이 점은 실제 팩션의 문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작자 후기나 인터뷰 같은 보조적 자료로도 나타난다. 역사의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다는 발견의 재미를 통해 팩션의 감동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전략이다.

그런데 팩션이 담지한 허구가 역사적 개연성이 충분한 사실로 포장되는 과정에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자의 역사관 혹은 역사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역사적 사건과 사료들 속에 묻혀 있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역사의 공백을 메우거나 혹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역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보면 『모반의 연애편지』는 작자의 역사관을 드러내는데 매우 거침이 없고 직설적인 편이다.

(가)

노란 사각 봉투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타 대학의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J가 친구의 글이라며 보내온 것은, 뜻밖에도 훈민정음 창제의 ‘또 다른 목적’을 밝힌 논문들이었다. 훈민정음을 만든 본래 목적은 세종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달라 한자로는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가없는 백성을 위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문자를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 보내온 논문들은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신문자 창제 작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지금껏 알고 배웠던 창제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문들은 ‘불교의 신성수인 108과 관련된 일련의 증거들’과 ‘훈민정음 창제자들의 불교적 신앙심’을 매우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불교관련 학회지와 개인회갑기념논총 등에 실려 나름 설득력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 논문들을 읽은 직후에는, 훈민정음 창제의 ‘또 다른 목적’이 정말 있었는지, 훈민정음 창제의 본래 목적 위에 후세 사람들이 종교적인 덧칠을 가한 것인지 금방 가늠할 수가 없었다.

J가 보내 준 자료는 소설 구상에 박차를 가하게 해 주었다. 당시 필자는 『훈민정음의 비밀』(2008)에 이어 훈민정음에 관한 또 다른 소설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특히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위해 사용私用된 것이 아닌가 하고 고심하던 중이었다. 왜냐하면 유교를 국가의 근간이념으로 표방한 세종대왕과 유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한 훈민정음이 어떤 일인지 언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부처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에 묶여 편찬된 사실에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J가 보내 준 자료는 논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필자에게 훈민정음 언해본과 세조의 권력찬탈 과정의 연관성을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런 작업과정에서 소설은 점점 논문의 주장과는 다른 맥락을 잡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16-17쪽)

(나)

이 소설은 세조의 후궁인 소용 박씨의 연애편지 한 통이 발단이 되어 세조의 왕위찬탈의 숨겨진 부분들이 수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단종의 죽음뿐만 아니라 문종의 죽음에 대한 비밀까지 함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수양대군은 어린 왕이 즉위한 후 나타난 불안한 정치상황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왕위찬탈을 위해 오랜 세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세조는 문종의 죽음을 단순한 病死로 위장함과 동시에, 찬탈한 왕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훈민정음 언해본을 매우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처럼 보인다. 훈민정음 언해본이 『월인석보』에 묶인 것도 세조가 통치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 세운 교묘한 술책의 결과물이었을 뿐, 애초에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불교 포교를 목적으로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이런저런 이유로 훈민정음 위에 가해진 종교적 혹은 정치적 덧칠을 벗겨내고, 백성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한 왕이 가졌던 순수한 창제 목적을, 과거의 조선 백성들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한글을 사용할 우리 모두에게, 되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먼저 (가)를 보면 작자는 세조의 왕위찬탈에 훈민정음이 이용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을 품던 차에 새로운 논문에 접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의 불교 관련설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역사적 판단을 다잡도록 자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용문 중 ‘훈민정음 언해본과 세조의 권력찬탈 과정의 연관성을 더 세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을 보면 사료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며 역사적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예의 『모반의 연애편지』를 쓰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역사관의 정립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논문이란 김광해의 「한글창제와 불교신앙」⁸⁾으로 대표되는 몇몇 논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주요 논지는 훈민정음 창제의 목적은 불교의 진흥에 있다는 것이며, 논거는 1) 훈민정음의 어지의 한문 원문과 그 언해가 각각 54자와 108자인데 그것은 불교의 신성수인 108과 그 반수이고, 2) 한문 원문에서 而已矣 대신에 耳를 쓴다든지, 언해문에서 “與文字不相流通”이라는 원문을 “문중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썸”로 언해함으로써 ‘與’의 번역으로서 ‘더브러(또는 ‘다뭇’)'를 누락시켰다든지, 3) 月印釋譜 1권이 108장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매우 작위적인 분절이라든지, 4)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과 세조의 명백한 불자로서의 태도나 사상 등이다.

작자가 이 논문들을 접하면서 ‘충격적’이라 말할 만 한 것이 사료의 제시나 역사적 해석이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작자가 새로운 사료의 제시나, 사료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여 새롭고 논증적인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내놓기는 버거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작자가 매우 다루기 까다로운 역사관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나)를 보면 작자는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의 서에 나온 그대로 세종대왕이 애민을 실천하기 위해 창제했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입장과 함께 특히 불교의 진흥을 위해 훈민정음이 창제 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세운다는 것이다. 자연히 불교와의 관련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논거는 철저히 부정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된 불교의 신성수 문제에서부터 세종과 세조의 불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훈민정음 창제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제거하려 한다.

8) 김광해, 「한글창제와 불교신앙」, 『불교문화연구』 제 3집, 영취불교문화연구원, 1992.

여기서 그 지난한 작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 작자가 보기에는 사료를 음모론적 시각에 묶어두는 것이다. 즉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사료들을 세조가 왕위 찬탈을 위해 꾸민 음모라는 틀 속에 철저히 복속시키는 것이다. 인용문에 나와 있는 ‘치밀한 계획’, ‘病死로 위장’, ‘정치적으로 이용’, ‘교묘한 술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음모론에 대한 거침없는 단정적 진술이 펼쳐지는데, 음모론적 시각의 완강함은 심지어 아직도 그 실체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 단종의 죽음, 문종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도 세조의 왕위찬탈이 빛은 살인으로 명쾌하게 단정해 버리는 것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불교와의 관련설을 철저히 부정한 채 훈민정음 세종어지에 나온 그대로 창제의 목적을 성균의 애민사상에 묶어두려는 그 알뜰한 의도는 음모론에 설득력 있는 개연성을 주는 일일 터인데, 음모론의 시각으로 모든 사료들을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자세나 그것을 흥미롭고 개연성 있게 제시하려는 서사전략은 사건설정에서부터 인물묘사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 실상을 보자.

(가)

그리운 어머니,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곳을 떠날 생각입니다. 불공행사가 끝나고 아버지께서 다시 들르셔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미 죽은 공주가 아닌지요. 다시 아버지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도 저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세종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남긴 유언은 잘 받았어요. 형제끼리 잘 지내라는 것과 음식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는 두 가지 당부를 하셨더군요. 세종 할아버지는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잘 내다보셨을까요.(475쪽)

(나)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았던 애 아들은 우연히 벽지를 뜯다가 그 밑에 쓰여 있던(‘총일’은 보지 못하고) ‘백팔장’이라는 글자를 본 모양이었다. 입맛을 잃은 왕을 위해 일부러 수리상에 앉혀진 아지는 막 익히기 시작한 글자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백팔장’ 중에 다서 살 아지가 알아본 글자는 ‘백팔’이었던 모양이었다. 아지가 백팔을 입에 올렸을 때, 왕의 얼굴은 굳어졌다.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아지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했다. 언젠가 아지가 숫자에 대해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한 것 같다. 글자 자랑에 신이 난 아지는 손으로 ‘百八’을 써 보였을 뿐 아니라, 읽을 줄도 모르는 마지막 글자 ‘張’까지 대강 그려내는 것이었

다. 왕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지고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가슴이 뛰었지만, 왕이 백팔장과 귀성군을 연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다음 날 수리상 앞에서 아지는 발작을 했다. 아지는 여러 날 고통에 몸을 떨며 비틀다가 결국 내 방에서 죽었다(485)

(다)

전하, 양쪽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들여다보며, 동시에 무릎을 치고 의기투합했던, 그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밀약서 서명자를 만천하에 내놓고도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할 수 있는 묘책이 그때 떠올랐지요. 합의의 징표로, 부처의 일대기를 다룬 『월인석보』 1권의 맨 앞에 백성의 소리인 훈민정음 언해본을 108자 세종 어지와 함께 넣고, 1권의 108면을 막아 끝부분에 ‘총일백팔장摠一百八張’을 삽입해 넣기로 한 것입니다. 눈가림을 위해 摠一百八張(총일백팔장)을 摠一百/八張(총일백/팔장)으로 나누어 줄을 바꿔 넣는 세심한 전략까지 짠 것입니다. 이로써 그 누구도 이것이 왕과 백팔장 모임의 공동 합의서임을 모르게 할 수 있는 비책을 찾아 낸 것입니다.(458쪽)

먼저 가)와 나)의 서신을 보면 세조의 성정이나 기질이 잘 드러난 경우인데, 모반의 연애편지에 등장하는 총 84편의 편지 중 가)가 83번째 편지이고 나)는 에필로그로 정리되어 있다. 매우 의도적인 배열이라 하겠는데, 우선 두 서신 모두 세조의 집요하고 냉혹한 품성을 그린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의 경우는 모반의 연애편지에 나온 핵심적인 서사라기 보다는 삽화에 가깝고 나)의 내용은 이미 앞의 서신들에서 충분히 제시되었던 내용을 반복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이 두 서신 앞의 다른 두 서신들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백팔장이 임금에게 보낸 서신과 백팔장이 덕중에게 보낸 서신에서 세조의 왕위찬탈과 불교계와의 밀약의 전모가 소상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월인석보를 둘러싼 세조와 불교계와의 밀약의 실체와 앞으로의 계약, 그리고 세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문종 독살설과 불교계의 처신 등에 관한 소상하고 진술한 전모가 밝혀져 있다. 때문에 의문의 사건을 풀어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의외의 비밀폭로가 완성된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서신으로 끝맺지 않고, 그 의미가 한참이나 아래인 세희 공주와 소용 박씨(덕중)의 서신을 결미에 보란 듯이 배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두 서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의도를 들여다보자.

먼저 가를 보면 세조의 사랑을 받던 딸 세희공주가 어머니인 정희왕후에게 쓴 서신으로, 에필로그인 소용 박씨의 서찰과 함께 결미를 장식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서찰은 단종을 귀양 보내는 것을 반대하다 세조로부터 죽음을 명받기 전에 궁을 도망친 세희공주가 은밀히 숨어 지낸 민가에서 우연히 세조와 마주친 후 다시 피신의 길을 떠나며 어머니인 정희왕후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속에서 세희공주는 다시 세종의 유언을 꺼내며 할아버지인 세종은 이미 왕자들 사이에 권력다툼이 일어나고 그 중심에 수양대군이 있을 것이며, 음식에 의한 독살을 예견했다는 것이니, 그것은 명백히 아버지인 수양의 탐욕스럽고 광폭한 성정,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를 근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희공주가 참으로 우연히도(그래서 그 작위적 설정에 나타난 작자의 집요한 의도가 노골적이게도) 수양대군이 참혹하게 살육한 김종서의 아들과 우연히 만나 갑작스럽게 부부의 연을 맺게 만든 설정을 보면 작자가 세조의 탐욕적인 성정과 집요한 권력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얼마나 집요한 노력을 하는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⁹⁾

아울러 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조는 자신이 아끼던 후궁 소용 박씨의 어린 아들 아지를 사랑하지만, 왕자가 우연히 소용 박씨가 은밀히 감추어 둔 서찰 속에 쓰여진 백팔장을 말하자 자신이 왕권찬탈을 위해 함께 모반했던 백팔장을 의미한 것이라 여겨 독으로 살해해 버릴 만큼 권력에 대한 집요한 집착과 그것을 지키려는 냉혹한 품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실 에필로그로 나오는 이 서찰은 『모반의 연애편지』가 불러 온 비밀을 정리하는 문자 그대로 에필로그에 해당하는데, 그 속에서 밝혀지는 비밀은 이미 앞의 수많은 서찰에서 그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 새삼스러운 내용은 앞서 말한 세조의 광기가 빚어 낸 왕자 아지의 살해사건이다. 그만큼 그 사건을 작자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9) 하지만 세희공주와 김종서의 아들의 만남, 결혼이라는 사건은 그 회박한 우연성을 개연성 있게 포장해줄만한 한 적절한 기제가 동반되지 않고 있어 작위적인 사건 설정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더해 다)에서 볼 수 있듯이 세조는 왕권찬탈을 위해 불교계 특히 백 팔장과 정치적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능숙하고 교묘한 술책을 쓰는 모반가로 그려지는데, 이미 광복한 성정까지 그려진 터라 그 어떤 금기도 뛰어넘어 모반과 모의를 벌일 가능성이 완전히 열린 셈이다.

이처럼 작자는 사료적 사실에서 역사적 사실로 넘어가는 즉 해석이 개입 되는 지점에서는 그러한 역사적 해석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세조와 불교계의 밀약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구성과 함께 그러한 사건의 설정이 가능한 개연성을 애써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조의 모반가적 기질과 집요한 권력욕 그리고 광복한 성정까지 집요하게 강조하고 반복함으로써 역사적 사료가 보여 주는 훈민정음 창제가 불교와 관련된 개연성—순수한 종교적 불심이 강한 세조의 면모, 세종의 명과 효심에 연계된 월인석보 편찬, 한글로 된 불경 편찬에 관련된 신미대사와 같은 불승의 활약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불교와의 관련성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108과 같은 불교의 신성수, 월인석보에 실린 훈민정음 언해 등—은 세조와 불교계의 밀약으로 철저히 규정짓는 전략을 취한다.

두 번째로 훈민정음 창제가 불교진흥과 관련이 없고, 세조의 왕권찬탈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사용(私用)되었다는 역사관이 드러나는 서신에서는 그러한 역사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역사적 사실(fact)을 들여다보는 제 3의 역사해석자가 등장하고, 그 역사해석의 보편성을 ‘연출’한다는 점이다.

(가)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무슨 논의를 하고 있었는지 물었더니, **한 젊은 학사가 마지못해 언문으로 번역한 훈민정음 세종어지가 정확하게 108인 것이 수상하다며, 서안 위에 놓여 있던 종이를 펼쳐 보였네.** 「훈민정음 세종어지」가 들어 있었는데 한문본과 언해본을 비교해놓은 것이었지.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훈민정음 세종어지」 한문본이 54자이고, 언해본이 108자라는 것이네.

나는 그것이 우연이라는 생각에 듣고만 있었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자적 번역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언문이 대응되도록 번역하면, 108자가 아니라 110자 이상이 된다고 학사는 설명했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108자로 꿰맞춘 것 같다는 것이네. **일부러 조사를 두 개 겹쳐 쓰거나 심지어 한자에는 있는 단어를 언해본에서는 생략을 한 것도 있다고 하더구먼.** 그렇게 해서 일부러 글자 수를 짜 맞춘 것이 역력하다고, **다들 수궁하는 눈치였네.** 부원군 생각은

어떠신가(150-151쪽)

(나)

애초에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는 스물여덟자가 아니라 스물 일곱자가 아닌가 합니다.

학사들은 어이가 없어 모두 점박이 학사를 바라보았고, 즉각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는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점박이 학사는 책거리에서 자료를 찾아와 우리 앞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훈민정음 창제반대 이유를 장황하게 펼친 최만리 대감의 상소문이었는데,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부분이 분명 “스물일곱 자 언문”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점박이 학사는 당시 집현전의 부제학인 최만리가 스물일곱자로 잘못 썼을 리가 없으며, 더구나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리는 마당에 글자 수를 틀리는 조심성 없는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물여덟자가 아니라 스물 일곱자가 되려면 지금보다 자음 하나가 적은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리를 했습니다. 최대감의 상소 중 해당부분을 보내 오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略)

그런데 이 새과란 학사들조차 글자 수를 반으로 줄여서 반절이라고 하다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하는 그 어리석음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학사들은 한결같이 이 갑작스런 우연의 일치에 감탄에 감탄을 거듭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워낙 불만스런 표정으로 있었던 탓인지, **학사들은 한패 거리가 되어 108과 54와 27이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캐묻는 것이었습니다.** (굵은 글자 필자, 160-162쪽)

먼저 가)를 보면 세조 당시의 실세인 한명회가 정창손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속에서 집현전 학사들이 나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훈민정음 세종어지의 한문본이 54자이고, 언해본이 108인데, 주지하다시피 108은 불교의 신성수이고, 54자는 그 반수이니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더욱이 한문본에 뒤이은 언해본이 한문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108자로 만들기 위해 작위적인 가감을 가했다는 것이다.

세조와 불교계의 밀약을 내세우기에 적합한 장면인데, 여기서 그 작위적인 개입을 강조하기 위해 혹은 그 논거적 타당성을 애써 강조하기 위해 동원한 전략은 객관적 사료에 대한 강조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직접 얽히지 않은 제 3의 해석자를 내세우고 그 해석의 보편성을 연출하는 것이다.

우선 실제로 한문본에서 언해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의 변형을 객관적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에 방점을 두어 강조하는데, 그것은 훈민정음 창제의 불교와의 관련설을 주장하는데 동원되는 역사적 사료와 해석 즉 <‘마지막 ‘便於日用耳’라는 구절에 사용된 어조사가 문제인데, 더 보편적인 ‘而已矣’를 사용하지 않고 왜 비교적 그 쓰임이 제한되는 ‘耳’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 ‘첫번째의 커다란 문제점은 “與文字不相流通”이라는 원문을 “문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씩”로 언해한 것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 몇 글자의 누락이 있다고 추리한다. 이는 “문종와로 () 서르 스뭇디 아니홀씩”의 ()부분에 ‘興’의 번역으로서 ‘더브러(또는 ‘다뭇’)에 해당하는 단어가 왜 누락되었는가 하는 의문>과 관련된 사실로서 “조사를 두 개 겹쳐 쓰거나 심지어 한자에는 있는 단어를 언해본에서는 생략을 한 것도 있다고 하더구먼. 그렇게 해서 일부러 글자 수를 짜 맞춘 것이 역력하다”고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나타난다. 동시에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해석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물들은 모두 배제한 채 객관적이라고 인정되기 쉬운 제 3의 해석자를 내세우는데, 그것도 실명이 주는 ‘특정한 입장이 반영된 시각’이라는 암묵적 인식을 벗어나고자 ‘한 짧은 학사’, ‘점박이 학사’, ‘더듬이 학사’ 같은 익명적인 호칭으로 일관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다들 수궁하는 눈치였네’처럼 그 해석의 보편성을 자연스럽게 강조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러한 사실은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서신의 당사자들이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영의정 신숙주와 하동 부원군 정인지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해석을 담보할 것 같은 제 3의 역사해석자로 집현전의 학사 그것도 무명의 학사를 내세우고, 훈민정음이 원래 불교의 신성수인 108의 사반수인 27자로 기획되었고, 부득이 28자로 공포된 훈민정음을 27자로 수정하는 일에 세조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하는 역사적 해석과 함께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사료 즉 최만리의 상소문에 27자로 분명히 명기된 역사적 사료를 애써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곧 바로 ‘학사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처럼 제 3의 해석자의 해석의 보편성을 넌지시 일깨우는 장면은 잊지 않고 연출하고 있다.

5. 맺음말

『모반의 연애편지』는 팩션의 매력(정치적 함의, 추리물 구조의 박진감, 역사적 개연성)과 서간체 소설의 강점(내면의 진솔한 토로, 극적인 직접성, 다양한 시각과 입체감)이 만나는 새로운 장을 개척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어우러지기 힘든 두 장르의 성격을 성공적으로 교합하여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비밀이 밝혀지는 서사가 주는 추리물의 박진감과 함께 인물의 내면 세계의 복잡하고 섬세한 결이 재미와 충실성을 두루 담보하고 있다.

『모반의 연애편지』에서 왕과 중전, 종친, 대신 그리고 내시부와 내명부의 다양한 인물들은 명분과 윤리 그리고 규율이 빚어내는 공적, 일상적 삶을 영위하지만 언제나 그들 삶의 무게 중심은 그런 삶의 수면 아래로 감추어진 욕망과 공포로 상징되는 이면적 삶의 진실에 전적으로 경도되어 있다. 총 84편의 편지를 꿰뚫는 저변의 공통적인 맥락은 삶에 있어서의 욕망과 공포의 섬뜩하고 치명적인 중요성에 대한 강조인데, 세조의 등극과정에서 일어난 계유정난과 정난공신 책봉으로 상징되는 ‘살육과 징벌에 대한 강박적인 두려움’과 함께 ‘신분적 비약에 대한 광적인 욕망과 집착’이 소설 속 삶과 역사의 유일하고 전적인 화두이다.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 두 사람 간의 가장 내밀한 의사소통 수단인 서신 이야말로 욕망과 공포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진솔한 토로 혹은 재현이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음모와 거사에 얽힌 그들 삶을 풀어나가는 버팀목이자 밀약서이고, 동시에 욕망과 공포가 빚어내는 삶의 다양한 변주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점은 한층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죽음과 같은 참혹한 대가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간직한 이들이 그런 비밀을 안간힘을 지켜내면서도 스스로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험거운 사투를 벌여나가려면 서신은 가장 절대적인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서신을 통한 삶만이 가능했었을 그들 삶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반의 연애편지』가 일련의 살인사건을 벌여나가는 음모의 집단과 그들을 추적하는 사건조사자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지 않는 점은 서간체 소설

과 왕이 꾸민 음모라는 특이한 사건설정에 관련되는데, 이런 제약을 벗어나 팩션 특유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반의 연애편지』는 i) 비기(秘器)를 다수로 확장하고, ii)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 전개를 보장하는 트릭을 설정하며, iii)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제한된 시각에 포착된 정보만을 드러내어 비밀의 다양하고 심원한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4개의 비기들은 『모반의 연애편지』에 등장하는 제 세력 간의 대립을 복잡하면서도 팽팽한 힘의 균형으로 이끌어 재미를 보장하는데, 비기 속에 담긴 비밀이란 것이 권력이나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이고, 서로의 약점을 비기를 통해 움켜질 수 있는 설정이어서 그만큼 대결구도는 힘의 일방적 우위로 흐르지 않고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서신이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많은 암묵적 인식이 넘치는 점과 관련하여 ‘오해’로 인한 사건의 돌발적이고 극적인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개연성이라는 족쇄를 뛰어넘어 사건의 극적 변전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미를 불러온다. 동시에 팩션이 마련한 허구의 세계를 역사적 사실의 왜곡으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새로운 서신들이 공개될 때마다 밀약의 비밀이 간직한 전모는 새롭게 구성되며, 숨겨진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그 과정은 밀약과 음모의 뿌리 깊고 음험한 실체의 발견이 주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연속이고 거듭된 반전이 주는 긴장감의 연속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다는 발견의 재미를 통해 감동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전략으로서 팩션에 설정된 허구의 역사적 개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값하고, 동시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불교와의 관련성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역사관의 명백한 현시를 위해 『모반의 연애편지』는 사료를 음모론적 시각에 묶어둔다. 즉 훈민정음 창제와 불교와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사료들을 세조가 왕위 찬탈을 위해 꾸민 음모라는 틀 속에 철저히 복속시키는 것이다. 음모론에 설득력 있는 역사적 개연성을 주기 위해 세조의 광폭한 권력욕이 태생적인 성정으로 강조되며, 정치적 술수가 풍

부한 음험한 모반자로 집요하게 그려진다. 동시에 훈민정음 창제가 불교진흥과 관련이 없고, 세조의 왕권찬탈 과정에서 훈민정음이 사용(私用)되었다는 역사가관이 드러나는 서신에서는 그러한 역사가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상 역사적 사실(fact)을 들여다보는 제 3의 역사해석자가 등장(특별한 당파적 입장에서부터 초연한 중립적 해석자라는 의도적 꾸밈)하고 그 역사해석의 보편성을 연출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다은, 『모반의 연애편지』, 생각의 나무, 2010.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0년 8월 5일 무오조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2. 논문과 단행본

강현구, 『문화콘텐츠의 서사전략과 인문학적 상상력』, 글누리, 2009.

김광혜, 「한글창제와 불교신앙」, 『불교문화연구』 제 3집, 영취불교문화연구원, 1992.

김기봉, 「팩션으로서의 역사서술」, 『역사와 경계』, 63호, 2007.6, 17-18쪽.

박 진, 「우리는 왜 팩션에 열광하는가」, 『문학과 사회』, 2005, 겨울호.

유정일, 「『월인석보』의 체제에 대한 분석과 그 의미」, 『불교문화연구』 제 3집 한국 불교문화학회, 2004 .6.

Abstract

Faction, Epistolary novel, and The narrative strategy

Kang, Hyun-Koo

Love letter of rebellion is the faction and epistolary novel, that uses the private feeling of letter and the character of faction as a mystery story evenly. The letter is a subsistence and barometer which draws time of desire and fear.

1. *Love letter of rebellion* keeps strength of faction, sets plural secret documents and has a command of trick, the accidental development of event/happening by misunderstanding. The secret document makes suspense through contriving equilibrium of power between confrontational groups and trick using misunderstanding leads dramatic change of event.

2. *Love letter of rebellion* tied up historical material at a conspiracy theory and emphasize antagonist's frenzied desire for power. Also, it takes strategies that secure universality of history interpretations by presenting neutral interpreter. (Key words : faction, an epistolary novel, a mystery story, a secret document, historical material, desire for power, interpretations of history, suspense)

▮ 위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